<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

불황카르텔의 모순들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학수고대하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불황카르텔 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공식 표명됐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월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 불황의 원인이 삼성·현대의 무분별한 참여 및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증설에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불황카르텔 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공급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불황카르텔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상공부가 취해왔던 불황카르텔 인정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가지 불황카르텔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불황카르텔 논의과정을 보노라면, 국내 석유화학 경영자들은 91년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에 대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에 골몰해 있으면서도 그 원인 처방에는 무신경하게 대처해온 게 사실이다.

석유화학 불황의 근원이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감소에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공급이 한꺼번에 100~300% 증가해 수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렸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내수는 연평균 10~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은 기하학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황국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불황은 그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면 당연히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관계자 특히 경영자들은 재벌의 힘을 등에 업고 있다는 못된 자만과 3~4년 고생하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나머지 가동률을 조정해 공급을 줄이고, 그에따른 가격상승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위적인 가격인상만을 추진해 온 것이다.

다시말하면 시장 기능을 중시한 마케팅에는 무관심한 채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특혜에만 의지하려는 못된 재벌의 습성 을 되풀이하려고 애쓴 것이다.

이같은 병폐는 3공화국 이후 줄곧 재벌을 과보호하면서 떡고물에 눈이 어두워 각종 특혜를 밥먹듯이 남발했던 군사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려하는 구시대적 경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석유화학 경영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석유화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는 화학저널 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줄곧 공장가동률을 80~85%로 조정, 공급을 줄이고 석유화학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내수와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30%정도의 공급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격 또한 20~3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특히, 공급과잉이 시작되던 91년 하반기나 92년 초 이러한 가동률 조정이 가능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폭락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조정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정부에 대고 불황카르텔을 인정해 달라고 목매는 것은 자기 희생은 생각할 수 없고 인위적인 특혜만을 바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어거지일 따름이다.

더군다나 가동률을 조정,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재벌 특혜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까지 불황카르텔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무정책이 오늘의 공급과잉을 불렀고, 책임을 통감한 상공부가 원망듣기 민망해 불황카르텔을

인정해 주겠다고 선심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순서가 틀렸고, 또 석유화학을 오늘 이 지경에까지 몰고갔던 90년 당시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상공부의 장차관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황카르텔 은 아무래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번의 잘못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 잘못을 보상해주기 위해 또다른 잘못을 다시 범하는 우를 재연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 뒤의 결과는 정부의 정책을 다시는 믿지못할 불신을 한다는 사실을 관료들은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석유화학 경영자와 상공부는 「화학저널」을 다시한번 정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화학저널 1993/10/4 · 11>